



# 큰 자랑



오 민 응

1

우리 학급 순남이로 말하면 우리모두의 첫째가는 자랑으로 되고있는 애였습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그것은 순남이가 학급에서 아니, 학교적, 군적으로도 두번째손가락에 꼽으면 섭섭해올상이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애였기때문이었습니다.

연구사인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남달리 정열이 뛰어나서인지 하여튼 그 애는 마치도 공부를 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애같았습니다.

시험때마다 점수를 5점밖에 더 줄수 없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고 학습경쟁에서는 또 더 올라갈 높이가 없어 《다리쉽》을 하기도 하고. 다른 애들이 연습지를 새까맣게 만들면서도 풀지 못해 애를 먹던 세상 까다로운 문제들도 속셈으로 척척 답을 끄집어낼때면 우리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입을 딱 벌리곤 했고 지어는 사람의 머리가 옳긴 옳을가 하고 신비하게 생각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상하다 한들 저렇게까지야 하고 말이지요.

학교에서 종종 조직하곤 하는 다과목문답식경연에도 그 애가 학급을 대표하여 나가곤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경연결과는 보나마나였습니다.

순남이가 출전했다는걸 알기만 해도 다른 학급 선수들은 아예 혼비백산하여 기겁하는 판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니 우리 학급동무들, 특히 학급장인 나의 자랑이 얼마나 컸겠는지야 더 말할 무엇하겠습니까.

《우린 정말 복이 있어, 순남이가 우리 학급에 있으니까.》라고까지 하는 정도였습

니다.

그런데...

순남이는 사실 학급의 더우기는 학급장인 나의 둘도 없는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참 우습다구요?

예, 알만 합니다. 방금까지 좋은 소린 다 해가며 칭찬하다가 갑자기 《고민거리》요 뭐요 하니 무척 이상해할 동무들도 아마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말을 다 듣고나면 내가 왜 그런 《앞뒤다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거예요.

사실 순남이는 우리모두의 제일가는 연구대상이었습니다.

보다보다 그런 애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글쎄 무슨 애가 그런지 수학이나 외국어와 같은 과목이라면 날개가 없어 날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울 지경이다가도 체육이라면 정말 거부기가 보고도 기뻐할만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보다 더한 락후분자가 있다고 말이지요.

누구나가 다 기다리는 체육시간이 되어 모두들 좋아라 운동장으로 달려나갈 때에도 그 애만은 마치 찬물에 들어서는 고양이처럼 마지못해 엉금엉금 나오곤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매번 거꾸로 1등, 축구를 시키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공을 한두번만 차봐도 다행이고...

순남이를 위해서도 이 말만은 차라리 하지 않는편이 나올거예요.

그런 애이다보니 수업후 동무들이 공을 차거나 철봉에 매달려 몸풀이를 할 때도 매번 교실에 혼자 남아 수학문제를 푸는가 하면 중얼중얼 외국어단어를 외우곤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만큼의 열에 하나만 해도 좋으련만...

그러니 순남이때문에 동무들 특히는 학급장인 내가 풀머리를 앓는거야 너무도 옹당한 일이었지요.

동무들이 비판이나 충고를 주면 또 뭐라는지 압니까?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랬다느니 또 뭐 《학문의 수재는 생활의 둔재》라나요.

어디서 이런 유식한 말들은 다 귀동냥해 두었는지.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급의 열성자들이 모두 모여 순남이문제를 토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순남이를 더이상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하나 그 애를 공부뿐아니라 체육도 잘하는 진짜로 학급의 제일 큰 자랑으로 되게 하려고 말이지요.

모두의 힘과 지혜를 다 합쳐서.

그날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앉아 궁리를 거듭해가며 《작전계획》을 빈틈없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애써 준비한 리순남작전의 총책임자는 분단위원장 철명이였고 참모장으로는 학급장인 나 주영이 그리고 다른 열성자들도 그럴듯한 《직무》를 하나씩 맡았습니다.

## 2

《작전모임》이 있던 다음날부터 리순남작전은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이미 짜놓았던대로 말이지요.

하루수업이 끝나고 과외시간이 되자 《작전》의 첫 서막을 맡은 체육담당위원 영범이가 맡은 역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학급별 체육경기가 멀지 않았는데 오늘은 훈련도 하는겸 공을 차는게 어때? 학급을 두 편으로 갈라서 우리끼리 말이야. 철명아, 주영아, 어쩔니?》

《체육이라면야 영범이말대로 해야지 뭐.》

《그래그래.》

다른 애들도 모두 좋다고 하여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좋은일하기담당위원 일철이가 맡은 역을 수행할 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가? 오늘 우리 학급이 학교 토끼사당번이여서 나랑 몇명은 가야 할텐데...》

사실 그날은 우리 학급차례가 아니었으나 일부러 다른 학급과 당번을 바꾼것이었습니다. 오늘 작전을 위해서...

《그래 몇명이나 가야 하니?》

《나까지 6명은 가야 해.》

학급인원 28명중 6명을 빼니 22명이 남는

셈이였습니다.

《야, 안되겠구나. 꼭 한명이 모자라.》

자기 역 수행을 맡은 영범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되긴 왜 안된다는거니? 절반씩 나누면 11명씩 꼭 되는데... 순남이까지 다 해서 말이야.》

《뭐, 순남이까지?》

그래도 순남이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외국어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필요없는 소리가 귀찮다고 귀까지 솜으로 막고서 말이지요.

뒤에서 킁킁하며 웃는것도 모르고.

나와 철명이는 먼저 토끼사당번애들을 떠나보낸 다음 다른 애들은 모두 준비를 해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중얼중얼 외국어단어를 외우고있는 순남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남일 방해해서 미안해.》

《왜? 무슨 일이 있니?》

순남이는 귀에서 솜뭉치를 뽑으며 물었습니다.

《판게 아니구 오늘만은 축구경기에 참가해줘. 인원이 없어서 그래.》

《왜 없다는거니? 다 어데 갔길래?》

《오늘 우리 학급이 학교 토끼사당번이razi 않니? 그래서 몇명 보내다보니 너까지 빼놓으면 꼭 한명이 모자라.》

《그럼 나까지 축구에?》

마치 자기는 공을 차면 안되기라도 하는듯이 순남이는 눈을 울퉁하니 떴습니다.

하긴 이때까지 학급에서 자체로 조직하는 체육운동에는 고정으로 빠지군 했으니 이제는 그것이 《체질화》된 모양입니다.

《응, 미안해. 오늘만은 좀 참가해줘. 정공을 차기 싫으면 경기장에 나가 서있기라도 해주렴.》

분단위원장과 학급장이 오히려 사정까지 해야 하는 판이니 좀 어처구니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수 없지요. 이미 버릇을 단단히 굳힌 순남이었으니까요.

이제 순남이가 어떻게 나올가?

그런데 뭔가 생각하는것 같던 순남이는 뜻밖에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서는것이였습니다.

《좋아, 가자.》

《?》

철명이와 나는 얼굴을 마주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까지 쉽게 응해나설줄이야. 오늘은 어떻게 된거람?

아무튼 다행이었습니다. 순남이가 버티기라도 하면 어쩌나 했는데...

처음부터 척척 돼가는게 혹시 《작전》이 슬슬 되려나?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너무나 때이른 것이었습니다.

철명이와 나를 따라 운동장으로 나오던 순남이가 갑자기 배를 그러쥐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아, 너 왜 그러니?》

《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래.》

《배가 아프다구? 어떻게 아프니?》

《모... 모르겠어. 그저 막 아파.》

《야단이구나.》

말을 한 나 자신도 무엇이 야단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순남이의 《아픈 배》가 야단인지 아니면 착착 되어가는 것 같던 《작전》이 그만 시작단계에서 파탄되게 된 것인지.

철명이를 보니 그 애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기색이 험뉘었습니다.

순남이가 피병을 하는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프다고 하는데야 우리라고 별수가 없었지요.

철명이와 나를 번갈아 살펴보던 순남이는 더 아픈 시늉을 해보였습니다.

《미안해. 난 아무래도 교실에 가서 안정해야겠어. 공이야 나없어도 찰수 있지 않니?》

그리고는 우리를 남겨둔 채 교실을 향해 종종걸음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는 애가 걸음은 어쩌나 빠른지.

우린 그만 닭쫓던 멍멍이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구요.

《허참.》

내가 먼저 허구픈 웃음을 짓자 철명이도 어이없어했습니다.

《철명아, 이제 보니 순남이머린 공부만 잘하는가 했더니 이런데서도 여간 뻥뻥 뻥뻥하지 않는구나. 첫시작부터 좋지 않은 데...》

《무슨 소릴 하니? 그렇다고 그냥 물러서자니?》

《그렇긴 한데. 하지만 별수가 없지 않니? 아프다는 애를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고.》

《어서 방법을 생각해보자.》

잠시 기웃기웃, 껌껌껌하던 철명이는 갑자기 《웁지, 됐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수가 생각났니?》

《응, 어서 가거나 하자.》

교실에 와보니 책상에 마주앉아 공부를 하고있던 순남이가 인기척소리에 놀라 쯤전의 아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아, 아직도 몹시 아프니?》

철명이가 묻자 순남이는 머리를 끄떡끄떡했습니다.

《응.》

《야단인데,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순남이는 깜짝 놀란 듯 눈이 동그래지더니 다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아니야. 일없어. 좀 난걸 뭐. 앉아 있으면 일없겠지 뭐.》

잠시 생각하던 철명이는 가방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 뭔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순남아, 이따 아픈게 나오면 이 문젠 좀 풀어봐줘. ... 나도 해보느라 했는데 잘 안돼서 그래.》

《어디 좀 보자.》

순남이는 얼굴을 펴고 철명이가 내놓은 문제를 훑어보더니 슬쩍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쯤한걸 가지고 그러니 하듯이 ... 때를 놓치지 않고 철명이는 좀더 다가붙었습니다.

《난 말이야 순남아, 이 문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엔 어땠니?》

철명이가 어깨너머로 그가 문제푸는 것을 지켜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철명이는 문제풀이를 전혀 엉터리없는 방향으로 끌고가고있었습니다.

철명이가 정말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 그래도 철명이는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에이 참, 가져와. 이까짓게 뭐라구 ...》 정 참지 못하겠던지 순남이는 철명이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냈습니다.

아파하던 기색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눈에 정기가 어렸습니다.

순간에 문제를 풀어제긴 순남이는 차근차근 설명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철명이는 리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남이는 더 열이 올라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젠 알만 하니. 별로 힘든 문제가 아닌데 ...》

《응, 알만 해. 역시 순남인 머리가 좋구나.》

철명이가 슬그머니 내 옆구리를 찔러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내 할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순남아, 아픈건 좀 어땠니? 다 나온것 같기도 한데 ...》

《으-응?》

그제서야 순남이의 얼굴에는 몹시 당황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다 나왔다면 어서 나가자꾸나. 다들 기다리는데 ...》

《응, 다 나온것 같은데 ...》

피바리 순남이도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순남이에겐 공부야 명약이로구나.》

순남이가 철명이의 전술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어쩔 방법이 없었지요.

고삐잡힌 송아지처럼 따라오는 수밖에, 우리가 순남이와 씨름질하는 사이에 영범이가 《작전조직》을 다 해놓아 그다음은 그야말로 얼음판에 박밀듯 되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때일을 생각하면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글썽 그날만은 공이 이상하게도 자석에 끌리듯 순남이만 자꾸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때라면 순남이가 공 한번 만져보기도 힘들었는데 ...

자꾸만 안겨지는 공을 처리하느라 순남이가 허둥대는 모양은 얼마나 우습던지 ...

전혀 엉터리없는 방향으로 차버리는가 하면 상대편 선수에게 《련락》을 보내기도 하고.

공을 찬다는게 다른 선수들을 걸어차 넘어뜨리기도 했구요.

그래도 우린 매번 《순남아, 잘한다, 잘해.》라고 칭찬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새 순남이 얼굴이 빨갭게 상기되었고 땀이 비오듯 흘렸습니다.

아마 세상에 나서 순남이가 그날처럼 축구를 《맹렬히》 해보기는 처음일것입니다.

순남이는 자기를 둘러싼 리순남작전의 참가자들이 서로 의미있는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알수가 없었지요. 다 《작전계획》에 있다는것은 더더욱 몰랐구요.

그렇게 전반전이 끝나갈무렵.

순남이에게 그야말로 천번중 한번이나 있을만 한 기회가 차례졌습니다.

상대편 골문앞에서 서성대던 그 애앞에 자기편 선수가 련락해준 공이 그대로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몇발자국앞에는 골문이 어서 오라는듯 입을 하나 벌리고있고요.

참으로 쉽지 않은 득점기회였지만 순남이는 몹시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살다살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순남이앞을 막아선 문지기 세철이로 말하면 온 학교가 다 아는 문지기명수로서 순남이한테는 정말 맨발로 바위차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옆에는 모두 상대편 방어수들뿐이고 자기편 선수라고는 한명도 없었으니 ...

《순남아, 빨리빨리 ...》

《야참, 뭘 꾸물꾸물하니? 어서 차지 않구 ...》

동무들의 불같은 독촉에 더욱 바빠난 순남이는 에이, 될대로 되라지 하고 생각한듯 골문을 향해 힘껏 내차고마는 것이었습니다.

운수가 좋으면 혹시 풀인할지도 몰라 하

고 말이지요.

그런데 참, 깜짝 놀랄만 한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순남이가 내찬 공이 세철이의 손끝을 닿을듯말듯 하며 그대로 풀문안에 횡- 하고 날아든것이였습니다.

어방이 직방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옆어져도 떡함지라고 해야 할지.

《야, 풀이다.》

《순남아, 정말 잘했어.》

순남이를 둘러싼 동무들이 기뻐서 칭찬을 해줬으나 순남이만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기색이였습니다.

제스스로도 눈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듯.

하지만 순남이는 알수 없었습니다.

자기 등뒤에서 영범이가 세철이에게 미리 눈을 깜빡해보였다는것을.

그것도 다 《작전계획》에 들어있는것이였으니까요.

그 다음경기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공은 여전히 순남이를 따라다니고 순남이는 순남이대로 그걸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고.

전후반전을 그런 식으로 맹활약하다보니 그 애의 공다루는 재간도 좀 나아지는것 같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화락 젖긴 했어도.

게다가 후반전 마감에는 순남이에게 또 한번의 기회가 차례졌고 이번에도 풀인이였습니다.

결국 순남이는 그날 경기에서 풀을 두알이나 넣은 《희한한 기록》을 세웠고 덕분에 그가 속한 팀은 3 대 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승리》할수 있었습니니다.

《야 순남아, 너 이제 보니 숨씨가 멋있었구나. 나도 오늘은 한풀도 못 넣었는데.》

우리 학급의 중앙공격수인 승일이가 먼저 말을 떼자 다른 애들도 저마끔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못 차는척 했니?》

《우리하군 시시해서 대상이 안된다는거지?》

《아, 아니야. 난 정말 찰줄 몰라.》

《우리가 다 보았는데두 왜 아직도 편전을 피우니?》

《너무 그러지 말아. 축구를 하면 했지 빠질거야 있지?》

이때를 기다려 영범이가 한걸음 나섰습니다.

《애들아, 래일부터 순남이를 아예 우리 학급 축구팀 선수로 정식 받아들이는것이 어

때? 다들 보았지. 공을 얼마나 잘 차나.》

《그래그래. 그게 좋겠어.》

《순남이만 나가면 요번 학급별경기에서도 문제가 없을거야.》

《아니아니, 난 정말 못 찬다는데.》

순남이가 아무리 도리머리를 저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더구나 순남이의 《재간》을 오늘 모두가 보았으므로 빠질 길이 없었습니다.

동무들의 벌떼같은 공격앞에 찢찢매던 순남이도 마침내 뭔가 불끈했던 모양입니다.

하긴 원래 자존심이 강한 애였으니까.

《좋아, 할테면 하자. 아무리면 공도 사람이 차는거겠지. 난 남들처럼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때를 놓치지 않고 영범이가 제격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구. 결심이 중요하지 뭐. 아마 순남인 잘할수 있을거야.》

그러면서도 한마디 침을 놓는것을 잊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래일 가서 또 발딱하니 뒤집진 않겠지? 한번 말했으면 그만이지.》

《누굴 뭘로 아니? 나도 약속은 지킬줄 알아.》

제풀에 약이 올라 씩씩대던 순남이는 녀동무들이 가져온 얼음과자를 단번에 두개나 먹어치웠습니다.

풀을 넣었으면 넣었지 시뚝해하긴.

아무튼 첫시작은 그만하면 멋들어지게 된셈이였습니다.

철명이와 나, 영범이 그리고 다른 열성자들은 서로 마주 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내막을 알고있는 애들도 키득키득했구요.

### 3

순남이를 학급축구소조에 끌어들이는데 성공은 했으나 그다음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다 순남이는 자존심이 센 애여서 더욱 조심해야 했구요.

자칫 잘못 옥박지르기라도 했다가 그 애가 패득하거나 앵돌아지면 야단이였으니까요.

공부라면 노상 떠받들리우군 했으니 우월감도 강할수밖에 없는건 뻔한 일이였지요.

그래서 철명이랑 영범이랑 그리고 나까지 머리를 맞대고 여간 궁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날 훈련결과랑 특히 순남이한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땐 우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글쎄 오늘 순남이가 찬 공이 공격수 승리의 머리에 날아가 맞지 않았잖니.

순남인 미안해서 어쩔바를 몰라하고.》

《승일인 뭐라고 안하던?》

《뭐라긴, 머리받기훈련 열번 할걸 한번에 몰아한셈치자고 했지.》

...

《오늘은 말도 말아. 순남이가 우리한테 런락한다면서 찬 공이 생똥같이 지나가던 너선생님들한테로 날아가지 않았잖니.

아짜아짜하니 스쳐지났길래 망정이지 간이 다 떨어지는가 했다야.

전번 승일이처럼 또 되는가 해서...》

...

《오늘은 순남이가 빼몰기훈련을 하다가 은철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단다. 물론 순남이도 함께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은철인 팔굽이랑 무릎이랑 벗겨지고도 싱글싱글 웃더구나. 아픈걸 참으며 웃느라고 눈물까지 찻끔 나오면서 말이야.》

아무튼 순남이가 주눅이 들거나 걱정하지 않고있다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워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함께 떠밀어주는 동무들이 고맙기도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한번 잘해보아야 할텐데...

그러나 잘해보기도 전에 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애들아, 철명아, 주영아, 크... 큰일났어.》

온통 땀투성이가 된 영범이가 숨이 턱까지 닿아 알려진것은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순남이가, 아이구, 습차.》

숨이 찬 나머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순남이가 어떻게 됐다는거니?》

우리가 다그쳐물어서야 영범이는 가까스로 한마디 했습니다.

《벼... 병원에 아니, 진료소에 업혀갔어.》

《뭘?》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는 놀라지 않았을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차근차근 말하려무나.》

그제서야 영범이는 속이 좀 가라앉은듯 떠듬거렸습니다.

《빼... 빼몰기훈련을 하다가 그만 공우에 올라섰지 뭐.

공이 굴러가는통에 짱- 하고 넘어졌어.》

《어디 다친덴 없니?》

《모... 모르겠어. 머리랑 땅에 부딪치긴

했는데... 승일이랑 진료소에 업고갔어.》

우리는 또 한번 까무라칠번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순남이의 그 좋은 박사머리가 글쎄... 이런 변이라구야.

《주영아, 어서 가보자.》

철명이가 내 손을 잡아끌어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으-응, 그래. 영범아.》

나는 얼른 영범이를 불렀습니다.

《어서 가서 선생님에게 알려.》

《선생님이 오늘 계실게 뭐니? 회의에 가셨는데...》

아차, 그렇지.

우리는 언제 진료소까지 달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끝내 일을 쳤구나, 일을 쳤어. 이번엔 피병이 아니라 진짜로...

에이, 이럴줄 알았으면... 무슨 일을 저질렀담.

진료소의 한 방앞에 우리 동무들 여럿이 모여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애들아, 순남이가 어떻게 됐니?》

《췌-》

승일이가 얼른 내 말을 막았습니다.

그가 가리키는대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마에 찬물수건을 올려놓은 순남이가 반쯤 누워있는것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소리도 들리구요.

그런데 이건 또 뭐람.

순남이가 중얼중얼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애는 지금 학교에서 배운 수학공식이 아니면 물리법칙 그리고 외국어단어와 문장들을 외우고있는것이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뭐가 잘못되게 아닐까?

《걱정마, 순남인 지금 자기 머리를 시험해보고있는중이란다. 혹시 다른 후과가 없나 해서...》

그속에서도 한순간 허거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순남이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긴 그 애의 박사머리는 순남이뿐아니라 우리 학급모두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의사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던?》

《좀 타박을 받긴 했는데 약이랑 먹고 며칠 안정하면 일없을거라고 해.》

《그래?》

그제야 안도의 숨이 약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수는 없었지만.

《철명아, 순남이네 집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내가 철명이한테 한 말인데 승일이가 끼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알리려고 했었는데 순남이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 어머니랑 걱정한다고. 의사선생님도 치료를 받고는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는걸 뭐.》

그리고나서 승일이는 우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가자. 지금은 떠들거나 방해하면 안된대. 조용히 있을수 있게 해야 한다.》

승일이한테 떠밀리워 진료소밖으로 나온 우리는 마당의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철명아, 우리가 공연히 순남이를 축구소조에 끌어들인건 아닐까?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같은 일도 없었을게 아니니?》

《하지만 우리가 순남이한테 축구를 배워 주려고 한거야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니?》

글쎄, 그렇긴 해도...

나는 일이 참 맹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린 순남이를 위해 좋은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이런 뜻밖의 사고를 쳤으니 말이지요.

이제라도 리순남작전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긴 그렇지 않아도 한번 혼이 난 순남이가 다시 공을 차겠다고 하겠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우린 그래도 큰 희망을 가지고 작전을 세웠었는데...

에이, 순남이 말이 맞아.

계사니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못 난다고, 언젠가 자기를 공격하는 동무들한테 그애가 한 말이었지.

철명이도 잠자코 말이 없는걸 보니 생각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철명아,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된것 같아.》

《응, 정말 잘못했어.》

나는 왜서인지 속이 찌르르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철명이도 나랑 생각이 같다는건데...

그토록 머리를 짜내여 준비하고 전진시켜오던 리순남작전이 이렇게 흐지부지되고말다니.

요 며칠사이에 있던 일들이 되새겨지며 허무한 생각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들 있었군요.》

갑자기 등뒤에서 울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서둘러 달려오신듯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했구요.

《선생님, 순남이가...》

《알고있어요. 이자 방금 순남학생을 만나보고 나오는 길인걸요.》

잔뜩 잘못을 저지른 애들처럼 서있는 우리에게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들 말아요, 의사선생님들 말이 며칠 치료만 잘하면 아무 일도 없을거라고 해요.》

나는 더 참지 못하고 한걸음 나섰습니다.

《선생님, 모든게 다 제 잘못입니다.》

다 말할테야. 순남이를 공연히 축구소조에 끌어들인거랑, 그래서 오늘같은 일도 생긴거랑.

그러나 철명이도 뒤질세라 나서는통에 나의 말은 중단되고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 더 큼니다. 순남이를 미처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오늘처럼 사고는 안 났을텐데...》

(?)

나는 눈이 커다라서 철명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순남이를 축구소조에 끌어들인건 잘했다는거람?

그러는 우리를 보고 선생님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순남학생을 위해 애쓰는 거랑 또 리순남작전이라는걸 세우고 마음을 쓰고있다는것도.》

나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가?

칭찬은 안하실거야, 사고를 쳤는데...

《물론 동무들이 순남학생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있는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순남학생을 지덕체를 다 갖춘 훌륭한 학생으로, 학급의 자랑으로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야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면에서는 동무들이 세운 리순남작전을 선생님도 지지하고싶어요.》

(?!)

수그렸던 머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선생님도?

《하지만 동무들, 생각 좀 해보세요. 순남학생을 축구소조에 넣는다고 해서 모든일이 다 됐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예요. 체육운동에 서툰 순남학생에게 맞는 훈련방법이랑도 생각해봤어야 했어요. 그랬더라도 오늘같은 일이 없었을수도 있구요.》

우리는 머리를 다시 수그렸습니다.

그래, 우린 그저 순남이를 축구소조에 끌어들여 훈련을 시키면 그만인걸로 생각했었지.

생각이 너무 짧았었어.

철명이 말이 옳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오늘처럼 사고는 안 치는걸. 너무 무관심했어. 그런데 난 순남이를 축구소조에 끌어들인것부터가 잘못이 아닌가고 생각했지.

《동무들, 우리 한번 잘해보자요, 순남학생이 정말로 우리 학급의 제일 큰 자랑이 되도록. 선생님도 힘껏 돕겠어요.》

다시금 울리는 선생님의 말씀에 머리를 들었으나 왜서인지 한숨부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순남이가 다시 공을 차겠다고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혼이 났는데...》

또다시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어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걱정말아요. 그래서 분단위원장, 학급장, 열성자들이 있구 또 동무들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무들의 그 마음을 알면 순남학생도 따라설거예요. 한번 잘해보자요.》

우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래, 순남이가 우리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따라서도록.

《아, 저기 나오는군요.》

돌아보니 순남이가 동무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영범이 그리고 승일이, 은철이, 그담엔 또 누구, 누구...

좀 나온게 아닐가? 아직 머리에 손을 짚고있긴 해도 동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걸 보니.

우리는 나는듯이 순남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순남아, 어땠니? 좀 낫니?》

순남이는 헤식은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일없어. 아직 지끈지끈하긴 한데 한참 나았어. 한잠 푹 자고나면 거뜬해질거야. 의사선생님들도 일없을거라고 했어. 미안해. 나때문에 다들...》

순남이가 막 야단을 해도 당장은 할 소리가 없는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니 정말 몸둘바를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좀더 잘 도와줬어야 하는건데...》

나는 그때 《어땠니? 앞으로 꽤 공을 찰수 있겠니?》하는 말이 그냥 맴돌았으나 차마 입밖에 내놓지는 못하고 망설이고있었습니다.

오늘일을 놓고서야 차마 어떻게 또... 뜻밖에도 먼저 말을 꺼낸것은 순남이였습니다. 참 고맙기란.

《철명아, 주영아, 영범이랑 은철이랑한

테서 다 들었어.

다들 나때문에 애쓰는거랑 또 리순남작전이란것도 세운거랑.

정말 고마워. 오늘은 또 나때문에 이렇게...》

《순남아,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정말 고마워. 너도 이제 보니 속이 큰 애였구나. 우린 글뒤주생님으로만 알았했는데...》

《애들아, 앞으로 나도 꼭 잘해볼게, 동무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야참, 순남아, 네가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수가 있니?

하지만 우리는 그때 알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선생님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는줄. 우린 그걸 썩 후에야 알았거든요.

그땐 그저 순남이가 고맙고 돌보이고 대견스럽기만 할뿐이었습니다. 일이 생각밖으로 되어가는것이 다행스럽기도 하고.

철명과 나는 순남이의 손을 맞잡기만 했을뿐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순남아.》

나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남인 깨송편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지. 어머니한테 부탁해야지. 아니, 내가 직접 빚을테야.

철명이나 다른 애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을거야. 참 좋은 동무들.

#### 4

그다음 일은 더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로부터 얼마후 학급별 축구경기 때 있었던 이야기만을 꼭 하고싶은것은 무엇때문인지?

원래 우리 학교는 군적으로 축구라면 1, 2등에 꼽을만큼 썩으므로 학급별 승벽심 또한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위를 가르는 경기 역시 치렬할수밖에요.

그 숨가쁘고 치렬한 속에서도 예선, 본선을 거쳐 준준결승, 준결승에 이르기까지 한계단, 두계단 올라온 우리 학급 축구팀은 마침내 1, 2등을 가르는 결승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승경기에서도 꼭 이겨야 할텐데. 그래서 1등상도 우리 학급이 받아야 하구.

경기날자가 다가올수록 우린 모두 바쁘고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대팀 역시 만만치 않았으니깐요.

낮에는 훈련으로 땀을 흘리다가도 저녁이면 늦도록 모여앉아 머리를 짜내기도 하고



4.3.3 체계요, 4.2.4 체계요, 전면공격, 대응방어요 하면서 말입니다.

낮이면 또 훈련을 하고.

그러던 어느날 저녁 작전토의때였습니다.

어느때는 노상 말 한마디 없이 잠자코 있던 순남이가 갑자기 누구에게라없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마그누스효과라는게 뭔지 아는 동무가 없니?》

마그누스효과라는건 또 뭐야?

처음 듣는 말이어서 다들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는데 순남이는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를수도 있어. 우리가 아직 몇학년을 더 올라가야 배울거야.》

역시 박사감이 다르다고 우리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마그누스효과라는게 뭔가 하면 말이야, 어떤 물체가 공기속을 돌면서 날아갈 땐 서로 다른 면에 압력차가 생기면서 그에 의한 힘이 작용하게 되거든. 그 힘을 받아 물체의 비행자리길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걸 바로 마그누스효과라고 한단다.》

《정말 그럴수가 있을까?》

《너희들도 보지 않았니? 교예배우가 던진 바람개비가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가다가는 한바퀴 빙 돌아 다시 돌아오는걸.》

순남이는 무대우에서 교예배우가 바람개비를 던지는 시늉을 해보였습니다.

《응, 맞아.》

《나도 봤어.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게 바로 마그누스효과란다. 알고나면 신기할진 하나도 없어.》

《응, 그렇됐구나.》

《역시 순남인 괜찮아. 그런걸 다 알구.》

우리는 순남이의 다음말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알게 뭐람. 《지식의 샘》에서 또 어떤 신기한 묘리가 나올지.

언젠가 있는 가을철 운동회에서 우리 학급이 바줄당기기경기에 나갔을 때에도 힘의 합력과 분력의 원리를 계산해내여 우리보다 힘이 센 상대팀을 보기 좋게 타승하게 한 순남이였으니깐요.

동무들의 초롱초롱한 눈길이 집중된 가운데 순남이는 자기가 생각한것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말야, 이번 경기에서도 그 원리를 리용할수 있다고 봐. 공도 공기속을 날아다니는건 바람개비와 같거든.

문제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돌면서 날게 하는가에 따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비행자리길을 마음대로 변화시킬수도 있어.》

들을수록 신기한 소리여서 선뜻 입을 여는 애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가?》

《된다니까. 그 방법만 익히면 상대팀 선수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공을 찰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니?》

《그렇긴 한데... 하지만 이제 날자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동작은 또 언제 익히구?》

《그래서 난 래일부터 그 동작을 익히기 위한 고정훈련을 하려구 해. 전문선수형님들의 도움이랑 받으면서 말이야.》

《순남이 네가?》

《응, 사실 난 이제 아무리 애써도 손일이나 다른 애들처럼 공을 멋지게 다룰 순 없을거야. 그럴바엔 차라리 특기동작을 하나 익혀두었다가 툭툭히 써먹는게 나을 것 같아.》

어떻니? 하지만 이걸 절대비밀.》

《정말 해낼수 있겠니?》

《걱정말라는데.》

결국 토의끝에 순남이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래일부터 순남이는 따로 《특수훈련》을 하도록 말입니다.

남은 며칠사이에 꽤 해내겠는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1등을 위해선 할수 있는걸 다 하고볼판이였지요.

순남인 순남이대로 얼마나 열성인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밤늦도록 남아 그 특기동작을 익히느라 땀을 흘리는 그 애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곤 하던지.

우리가 보다못해 《순남아, 이제 그만하고 어서 돌아가 쉬려마. 밤도 깊었는데.》 하면 또 뭐라는지 아세요?

《일없어. 이제 경기에서 1등을 하면 그담엔 푹 쉴테야. 하지만 지금은 안돼. 노력 안하고 저절로 되는 일이 있니?》

하긴 이때까지 노상 1등만을 해온 순남이였으니 승벽심이나 자존심이 셀수밖에는요.

그러는 순남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지난간 일들이 돌이켜지며 그 애가 더욱 돋보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꼭 1등을 하게 될거야.

그래서 순남이도 저렇게 노력하고있는거구 하는 신심도 생기구요.

이렇게 여러날이 지나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 2등을 가르는 결승경기를 하는 날.

아마 운동회날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요란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정말 경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랐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우는 속에 공은 선수들사이로 맹렬히 오갔고 땀은 비오듯 흘렸습니다. 정면과 측면으로 우리가 몇번이나 멋들어진 공격조직을 해보았으나 매번 상대팀의 숨씨있는 방어에 부딪쳐 실패만 거듭했고 오히려 맵잔 역습앞에 아슬아슬한 고비를 겪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맞다드는 대상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마당에 올라왔으니 실력이 간단치 않을수밖에 없었지요.

서로 만만치 않은 상대끼리 맞붙은 경기여서 응원자들뿐아니라 모여온 구경꾼들까지도 속을 조였다눅찼다할만큼 《가렬》했습니다.

그런데다 순남이가 장담하던 《마그누스효과》마저도 제대로 은을 내지 못하고있었으니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경기를 앞두고 순남이의 특기동작을 시험해보았을 땐 얼마나 신기하던지.

아직은 실수가 많긴 했어도 그런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선회시키며 공을 차는것이 정말 신통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축구라면 아예 백지장이나 갈던 순남이에게는 그만큼도 상당한것이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승일이랑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마그누스효과〉라는데 뭔가 했더니 깎아차기를 보고 그러했구나. 그런걸 난 또...》 하긴 했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몇번이나 그 애에게 공을 안겨주며 기회를 마련해주려고도 했지만 일도 참.



위낙 공다루기만은 다른 애들보다 서툰 순남인지라 매번 그 기회를 놓치곤 하는것이었습니다.

《순남아, 빨리빨리.》

《순남아, 옆을 봐. 뒤에도 공격수가 붙었어.》

동무들의 열기어린 재촉에 순남이는 더 당황하여 허둥대군 했고 매번 공을 헛판 방향으로 날려보내지 않으면 상대팀 선수에게 빼앗기기도 하는것이었습니다.

공다루기실력도 문제지만 경기경험이 없는것이 더 야단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선수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순남이를 다른 선수와...

아니야, 그건 안돼. 오늘을 위해서 순남이가 얼마나 아글타글해왔다고.

《에이 참, 무슨 공을 그렇게 차니?》

속이 달아오른 나머지 불평을 내쫓는 애도 있었으나 우리는 순남이를 믿고만싶었습니다.

공은 여전히 선수들사이로 쉼없이 오가고 땀에 젖은 선수들은 그걸 쫓느라 정신이 없고.

그런 속에서 시간이 흘러 후반전도 끝날 때가 되었으나 0 대 0 동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짜아짜하던지.

이러다가는 11미터차기로 승부를 갈라야 할판인데...

그건 사실 우리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11미터차기실력에서는 우리가 상대팀보다 약하다는걸 알고있었으니깐요.

한꼴만, 한꼴만이라도 넣었으면. 우리는 모두가 속을 조이며 숨가쁘게 뛰여다녔습니다.

그런 속에서 경기마감을 1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구석차기가 차례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

만일 이번에마저도 득점을 내지 못한다면?

《애들아, 내가 한번 해보겠어.》

뜻밖에도 순남이가 나서는것이었습니다.

《순남이 네가?》

《꽤 해낼수 있겠니?》

《걱정마, 이런 때 써먹자고 익혀둔게 있지 않니?》

그 마그누스효과란지 뭔지 하는 특기동작을 쓰겠다는건데...

글쎄 될수도 있지만 그러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우리를 향해 싱긋 웃어보인 순남이는 구석차기위치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나의 심정(아니, 철명이나 다른 애들도 다들바가 없었을것입니다.)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순남이가 꽤 해낼수 있을까? 차라리 구석 차기를 다른 애한테 시키는게 어떨까?

하지만 그렇게야 어떻게...

어느새 꼴문앞에 한벌 늘어선 방어수들이며 그속에 끼워있는 우리 공격수를 바라보던 순남이는 약속된 동작신호를 보내는것이었습니다.

특기동작차기를 하겠다는...

나뿐아니라 철명이와 영범이 그리고 다른 애들도 모두가 긴장된 기색들이었습니다.

순남아, 정말 자신이 있니? 아까도 몇번이나 실수를 했는데...

미타하면 이제라도 물러나려마.

잠시 몸을 가다듬은 순남이가 내찬 공이 씩하니 날아오를 땐 정말 숨이 딱 멎는듯했습니다.

공중에서 땡이처럼 돌며 날아오는 공은 물독만큼이나 커보이고요.

《와-》

불시에 우리 선수들과 응원자들속에서 터져오르는 환성.

곡선을 그으며 날아온 공이 그대로 꼴문 안으로 똥 하고 날아든것이었습니다.

《히야-》

상대팀 선수들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도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시다.

순남이도 차던중 이번처럼 땡시있게 숨씨를 보이기는 처음이었을것입니다.

더우기 순남이를 아직도 글뒤주샌님으로만 알고있던 상대팀 선수들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래질수밖에요.

순남아, 정말 멋있어. 아주 잘했어.

그러나...

더 큰 환성이 터진것은 상대팀에서였습니다.

순남이가 멋지게 차넣은 공을 상대팀 문지가 가까스로 쳐낸것이었습니다.

예상밖으로 날아오는 공을 처리하느라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기까지 하면서도 말입니다.

역시 재간있는 문지기가야.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아쉽던지.

정말 쉽지 않은 기회였는데.

그러나 다음순간.

또다시 우리 팀에서 요란한 환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문지가가 겨우겨우 쳐낸 공을 우리 팀의 공격수 승일이가 재빨리 달려들어가며 멋있어진 머리받기 슛으로 꼴만한것이었습니다.

문지가가 미처 손쓸새도 없이 말입니다.

아무리 재간 좋은 문지기가라고 해도 재차 총알처럼 들어오는 공을 막아낼 재간이 있어야지요.

《야, 꼴이다. 꼴!》

《1 대 0, 1 대 0》

경기마감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린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온 운동장이 떠나갈듯 한 북소리와 징소리, 환성.

《이겼다, 만세...》

《1등이야, 1등.》

온 학교가, 모두가 보란듯이 운동장 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갔습니다.

《순남아, 승일아, 정말 멋있어.》

《정말 잘했어. 최고야, 최고.》

《순남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꼴을 넣을 수 있었겠니? 다들 봤지?》

《그래, 얼마나 땡시있게 차던지 정말 놀랐어.》

《난 꿈을 꾸지 않나 했어. 순남아, 너 우리 몰래 어데 가서 교예련습을 하지 않니? 공다루는 재주랑 말이야.》

동무들의 칭찬앞에 순남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는 또 얼마나 기쁘던지.

체육이라면 아예 손발을 다 들던 애가 오늘은...

경기에서 1등 한 기쁨도 컸지만 오늘의 순남이를 보는 기쁨도 그만 못지 않았습시다.

순남이를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속도 태워온 분단열성자들과 동무들.

철명이, 영범이, 승일이...

그 훌륭한 동무들속에 학급장인 나 주영이도 한자리 당당히 차지하고있다는 긍지로서 가슴은 부풀어올랐습니다.

《순남인 정말 우리 학급의 큰 자랑이야.》

분단위원장 철명이가 얼른 내 말을 받았습시다.

《그래, 이젠 순남이가 정말로 우리 분단의 제일 큰 자랑이 됐어.》

《제일 큰 자랑.》

동무들모두가 입을 모아 합창을 했습니다.

그다음 약속이나 한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

그후 순남이가 학교적인 다과목경연에 참가하여 학급의 영예를 또 한번 떨친것은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서 있는 일이였습니다.

정말이지 순남이는 우리모두의 제일 큰 자랑이었습니다.